

陰陽 五行說에 對하야(三)

天台山人의 蒙을 啓함

趙憲泳

郭氏의 陰陽五行說에 對한 知識이 알고 理解가 不足한 點에 對해서 多少論評하고 싶은 點이 있으나, 그보다도 郭氏의 人物과 立場을 理解하는 것이 우리가 正當한 批判을 하는데 必要한것이다.

郭氏는 日本 留學生 出身의 中國의 新進學者다. 岡山 高等學校에서 修學하고 九州帝大에서 醫學을 工夫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조 忠實한 맑스學徒요. 가장 굳센 實際的 共產主義 運動者의 한 사람이 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大學에서 醫學을 專攻한 新進精銳의 洋醫學徒인 郭氏—일즉이 四川省立 病院長으로 招聘을 받은 일이 잇는 郭氏가 自己의 醫學과 對立狀態에 잇는 自己가 理解하지 못하는 漢醫學 理論을 攻擊無視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漢□哲學이 顛倒되었다고 速斷하는것은 너무나 淺薄한 생각이 아닐까. 郭氏뿐아니라 全世界의 現代 醫學徒의 거의 全部가 漢醫學을 蔑視하고 攻擊하고 批難하고 反對하지마는 現下의 形便은 漢醫學의 勢力이 날로 날로 膨脹하고 잇는 것이 事實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漢醫學 그 自體가 그만큼 發展될만한 客觀的 條件을 가치고 잇기 때문이다. 그것은 筆者의 獨斷이 아니요. 第十三回大 日本 生理學會大會에 「支那固有醫學의 生理」란 題로 報告한 田中吉左衛門氏의 論文中에도 漢醫學上 陰陽五行說이 學術的 論據가 잇는 것을 볼 수 잇으며, 昨年三月에 東京서 洋醫學을 專攻한 醫師가 八十餘名이 連署하야 內務省에 請願해서 漢方科를 改正 醫師法에 認定하게 되었으며, 日本醫界(西洋醫學)에 權威잇는 醫學者 數十名이 中心이 되어서 「日本 漢方 醫學會」를 創立하야 漢醫學의 研究, 發展, 普及에 全力하고 잇으니, 그 사람들이 決코 西洋醫學을 郭氏만큼 모르는 것이 아니요. 自然科學을 離反한 사람들도 아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郭氏는 맑스主義學者인 同時에 實際에 陣地에 서

서 赤軍을 指揮하기까지한 熱烈한 社會 革命 運動者다. 그러면 郭氏에게 가장 强敵은 中國人의 自尊心이며 따라서 그 自尊心을 나케한 中國 固有 文化의 牙城에 肉薄하는 것이 가장 賢明한 方法임을 郭氏는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郭氏의 中國 古典 研究는 그 出發點에서 벌써 公正冷靜한 態度를 일컬으니 그 著書에 一言된 精神이 中國 固有 文化의 價値를 低下하기에 努力한 대 잇는 것은 否認할수없다. 勿論 그 批判이 理論的으로 正當한 點도 만흐나 그 中에는 東洋學의 本質을 理解하지 못하고(理解하면서 意識的으로 그렸는지 모르지마는)無理히 東洋學을 貶毀하는 誤謬된 結論을 한 대도 없지안타.

그러니 우리는 郭氏의 東洋學批判을 無批判으로 全的으로 是認할수는 없는 것이다.